

외로움  
시계



풍산초 3학년 주하정

[소개의 글]

이름 : 주하정

좋아하는 것 : 먹는 것(치킨, 피자, 삼겹살, 콜라, 라면, 과자,  
햄버거, 감자튀김, 아이스크림, 음료수, 빙수, 빵, 치즈, 스테이크, 오므라이스)

싫어하는 것 : 돼지라고 놀리는 것

그림책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시계는 주인에게 버려졌다고 생각해서 울며 떠났습니다.

시계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다시 주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물건을 버리지 말고 아껴쓰자 입니다.

| 지은이 | 주하정

| 펴낸곳 | 풍산초등학교

| 발행일 | 2020년 10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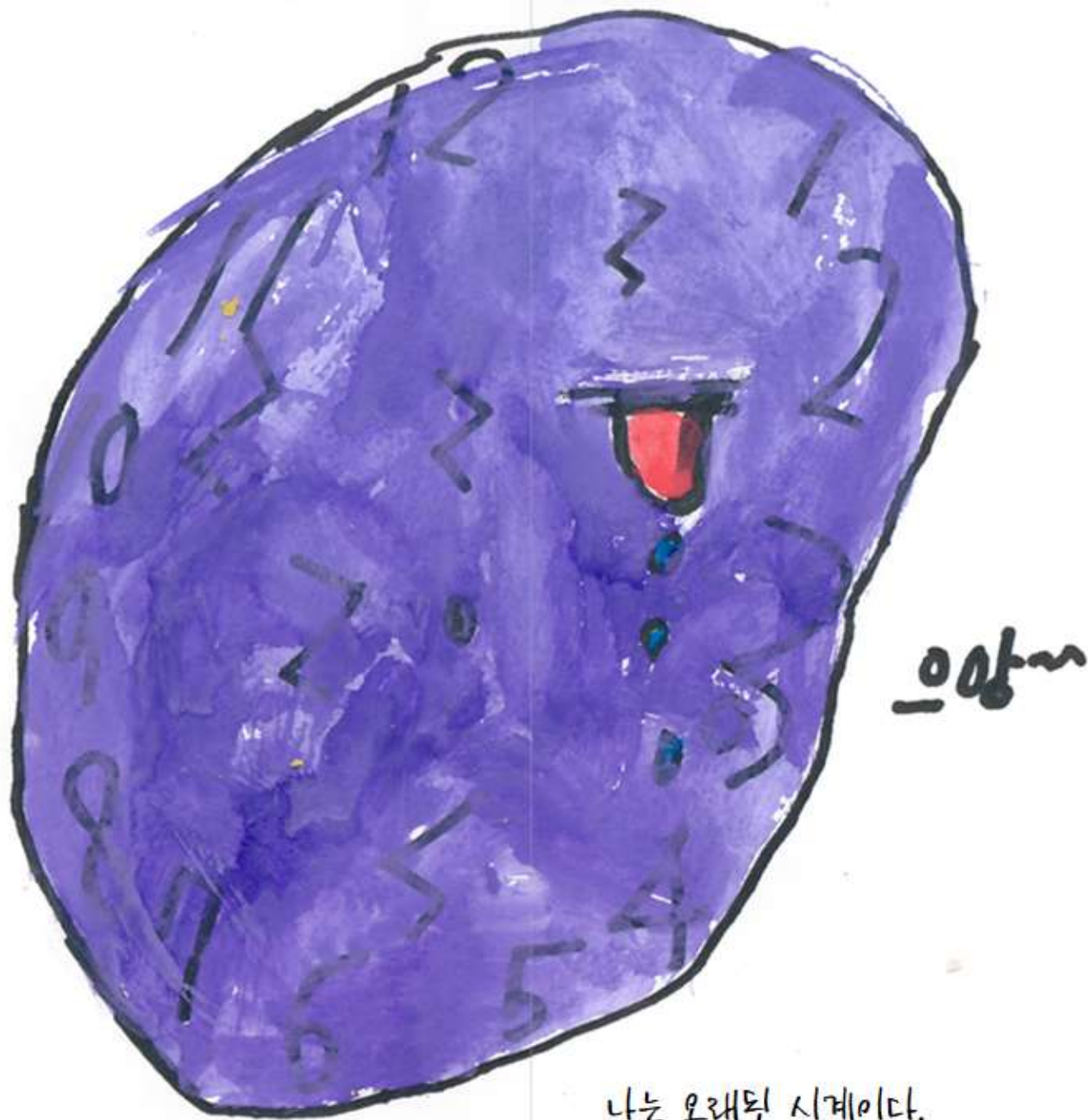
이 책의 저작권은 지은이 주하정과 풍산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외로운

시계





나는 오래된 시계이다.

나를 아껴주던 주인한테 버려져서 너무 슬프고 외롭다.



친구를 찾아 나서자.

일단 버려진 물건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자.

그곳에 가면 나처럼 버려진 친구들이 있을 거야.





~이요~

양 인형을 만났다.

"어? 안녕. 너 이름이 뭐니?" 내가 물었다.

"어 나는 양이야~ 만나서 반가워. 양이 대답했다.

"우리 같이 여행을 떠날까?" 내가 물었다.

"좋아" 양이 좋아했다.

이번엔 바닷가로 갔다. 그곳에서 꽃게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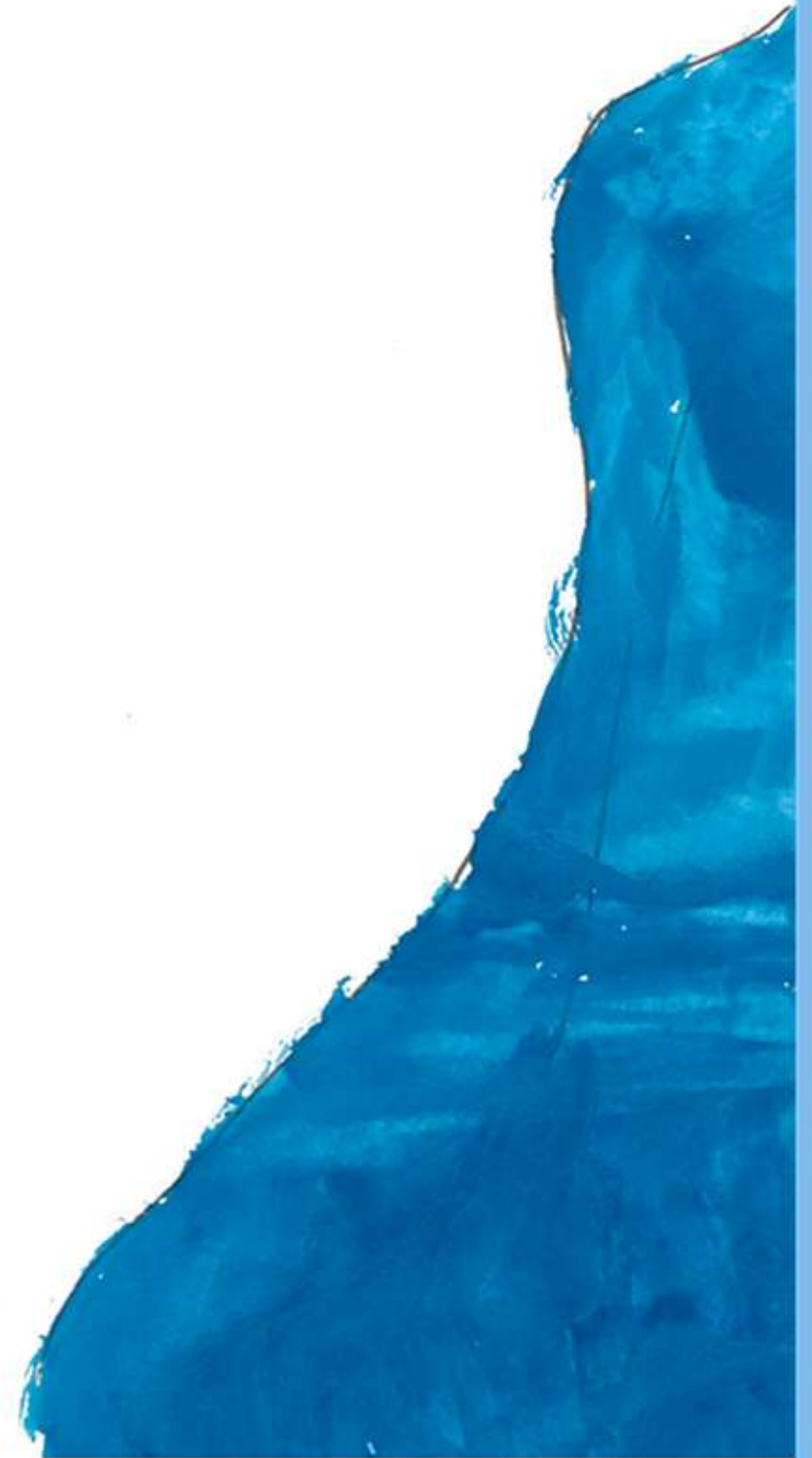
"안녕~ 넌 이름이 뭐니?" 꽃게가 물었다.

"난 시계고, 내 옆에 있는 애는 양이야" 내가 대답했다.



“근데 너는 왜 울고 있어? 무슨 일 있었어?”  
양이가 꽃게한테 물었다.

“주인이 나를 버렸어”  
꽃게가 울면서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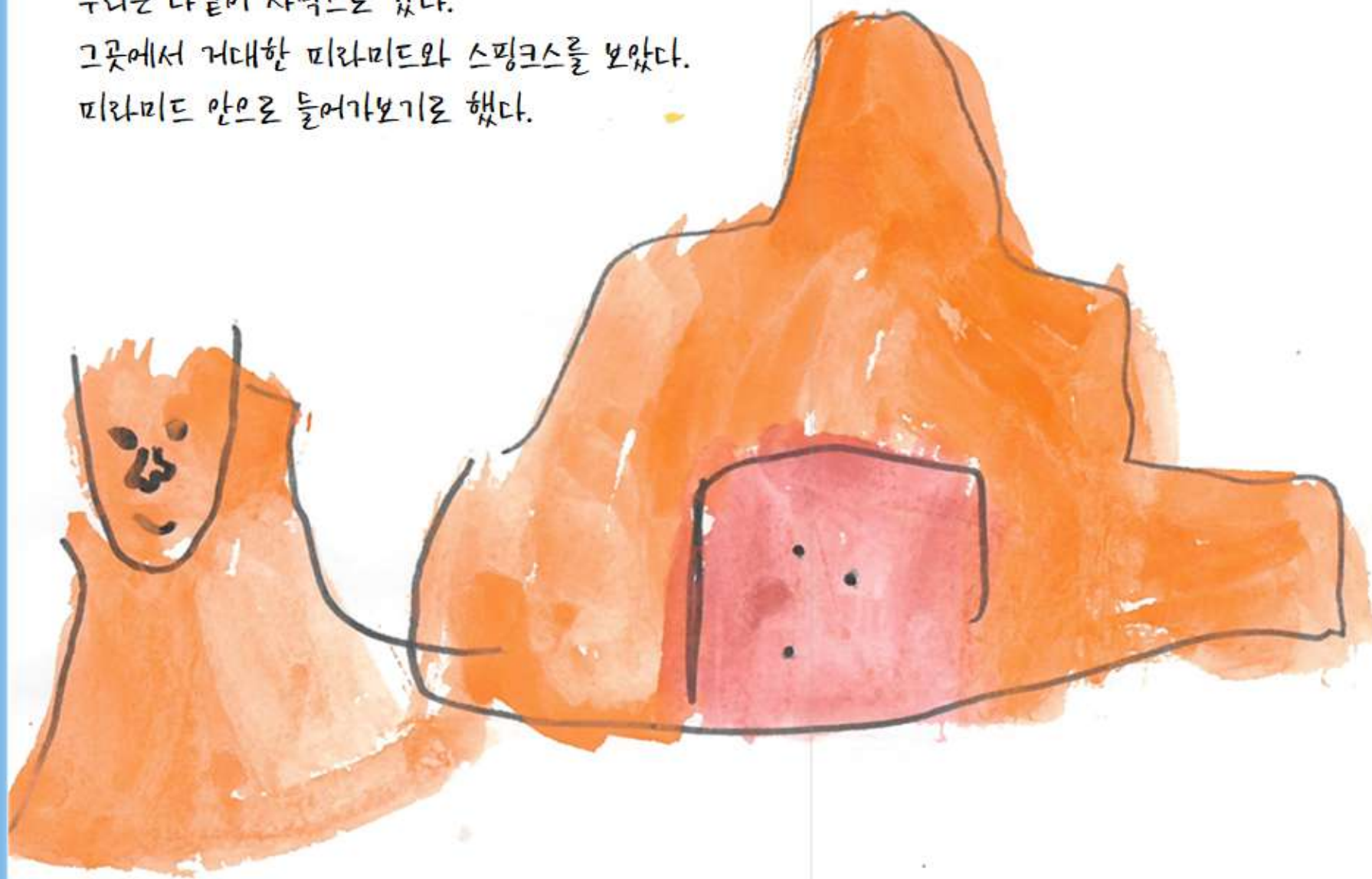
“그럼 우리 같이 여행을 떠나자.” 내가 말했다  
“같이 가자.” 양이도 말했다.  
“알았어” 꽃게가 울음을 멈추고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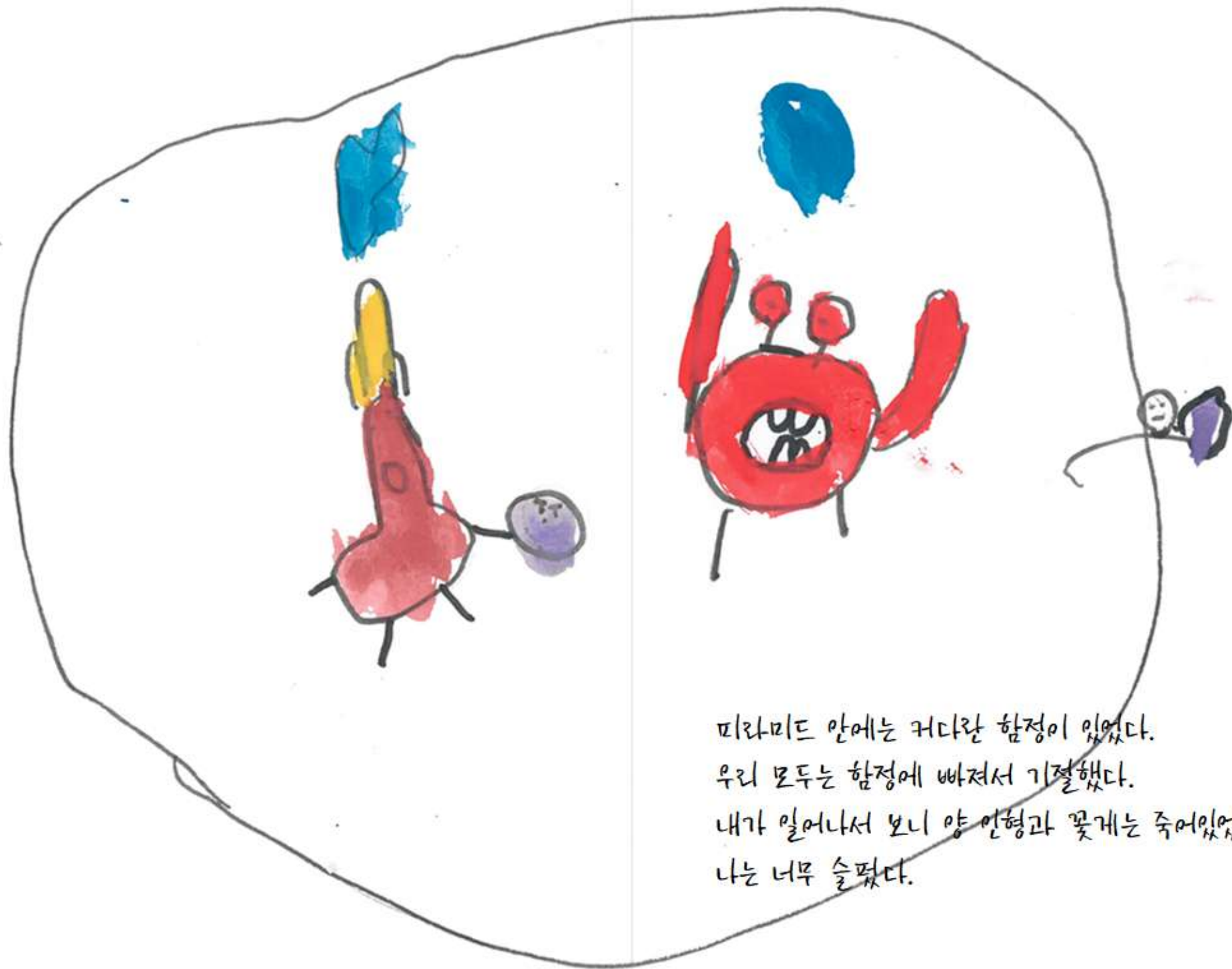


우리는 다같이 사막으로 갔다.

그곳에서 거대한 피라미드와 스팅크스를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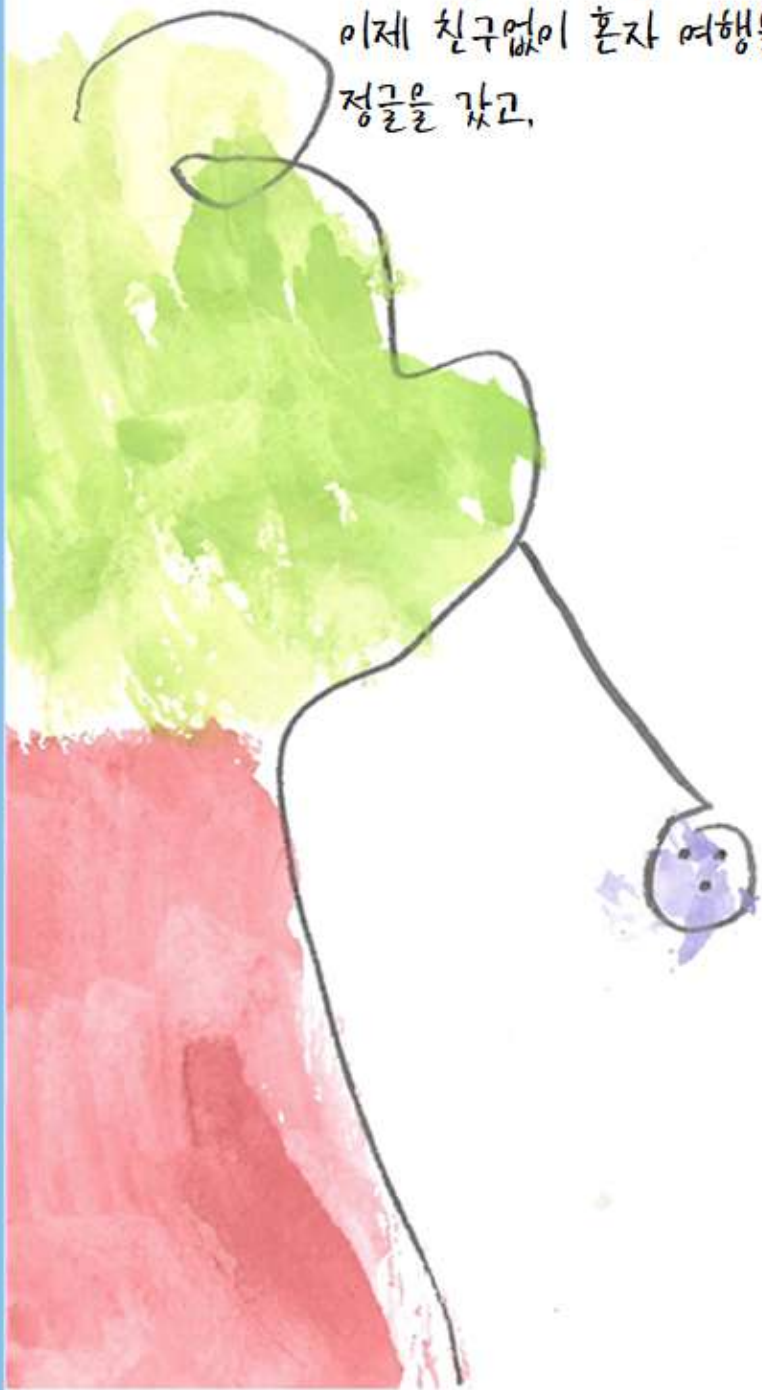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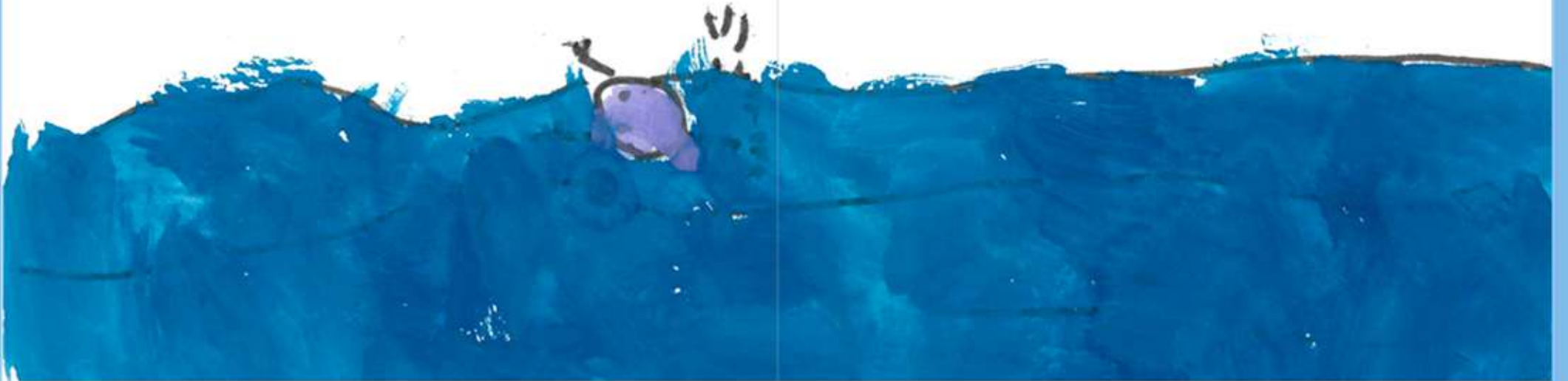
피라미드 안에는 커다란 함정이 있었다.  
우리 모두는 함정에 빠져서 기절했다.  
내가 일어나서 보니 양 인형과 꽃게는 죽어있었다.  
나는 너무 슬펐다.

나는 힘들게 함정을 빠져나왔다.  
이제 친구없이 혼자 여행을 떠나야 했다.  
정글을 갔고,





힘들게 헤엄을 쳐서 바다도 갔다.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  
그러다가 친구 생각이 나서 울었다.  
물다 지쳐 쓰러졌다.

그때 옛 주인이 나를 찾았다.  
주인은 나를 잃어버렸다고  
그동안 애타게 찾고 있었다고 했다.

주인은 나를 깨끗이 고쳐주었고, 건전지도 갈아주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벽에 나를 걸어주었다.  
시계는 이제 더이상 외롭지 않았다.

